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사회계 문제지는 총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자연물들처럼 그저 ‘움직이는 물체’이다. 이처럼 물질적 존재로 규정할 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인간들과 분리된 대상이 된다. 어떤 영성적인 연결성이나 일체감이 전혀 없이, 다른 인간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내적으로도 타인의 안녕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의 위상을 갖는다. 즉 인간은 자기의 삶을 보전하고 행복을 좇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나’의 행복에 관해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이는 자기 자신이므로,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인간형 모델’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가능한 한 쾌락을 즐기고 고통을 피하려는 일차적인 행동 동기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선악’이라는 개념도 애초에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쾌락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에,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결코 타락의 징표가 아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 및 삶의 보전에만 신경을 쓴다면, ‘국가의 영광을 위한 전쟁’과 같은 거대한 행동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 [나]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피터슨에게 긍정심리학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타인”. 긍정적인 것이 홀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큰소리로 웃었을 때는 언제인가? 말할 수 없이 기뻐했던 순간은? 최근에 심오한 의미와 목적을 감지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자긍심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나? 당신의 삶에 피어난 이 절정의 순간들을 내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의 형상만큼은 알고 있다. 그 모든 순간은 바로 타인을 중심으로 펼쳐졌을 것이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타인은 최고의 해독제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는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아주 못마땅하다. 내 친구가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가 기분이 언짢은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꿀이 난 모양이구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래?” 어머니의 제안은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어왔다. 과학자들은 친절한 행위가 행복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 [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라고 대답했다.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이다.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대만 등이었다. 성인 1만 9,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대상 17개국 중 14개국은 ‘가족’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이었다. 가족이 1순위에 오르지 못한 국가는 3개국으로, 한국과 스페인, 대만이었다. 스페인은 1순위로 ‘건강’을 지목했고, 대만은 ‘사회’를 선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 중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라며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국이 ‘가족과 아이들’을 가장 많이 꼽았다.”라고 밝혔다. 한국인이 ‘물질적 풍요’(19%)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로 꼽은 요소는 ‘건강’(17%)이었다. 14개 국가에서 1순위로 꼽힌 ‘가족’은 한국에서는 3순위(16%)를 기록했으며, ‘사회’, ‘자유’ 등이 그다음 순위를 이었다.

< 뒷면에 계속 >

[라]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하여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자 가장 좋은 것, 즉 최고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쾌락은 가능한 한 많은 욕구를 충족하거나, 사치스러운 향락을 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나 향락을 좇다 보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려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면서, 불필요한 욕구를 자제하는 절제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의 부정의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세속의 삶을 떠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지혜를 통해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학파가 지향한 쾌락주의의 이상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를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불렀다.

[마]

사람들은 자신이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업과 관련해 불행감을 느낄 수 있다. 실업자의 불운한 운명에 동정심을 가지거나, 자신도 장차 실업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과정에서다. 사람들은 경제와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실업보험 부담금의 인상이나 세금 증가를 꺼릴 수도 있고, 범죄의 증가나 사회적 긴장의 심화를 염려할 수도 있다. 심지어 실업으로 인한 폭력적인 시위나 소요 사태를 우려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모든 요인을 일정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실업률만 1% 상승할 경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0.028점 줄어들었는데(4점 척도 기준), 이는 대단히 큰 영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

흥부 부부가 박 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사]

(...) 일 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 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옥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스러져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곤 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찢빵가게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썩썩 달려가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순도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은성장여관, 미림여관, 거부장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체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하였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아]

여가와 사회자본은 행복 추구에 중요한 요소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의 시민들일수록 사회적 자본을 주로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종교활동 등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은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은 서로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킨다.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또한 더욱 폭넓고 다채로워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참여 활동이 더 활발하고, 스포츠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문화적 자본과 관련된 여가활동인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참여 활동은 월소득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높으며, 스포츠참여 활동도 월소득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더 활발하다. 한편 취미·오락 활동은 소득수준 2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활발하고, 사회관계 활동은 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 월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분석 결과를 보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산책, 낮잠과 같은 휴식 활동, 계모임·동호회, 잡담·통화·문자 보내기와 같은 사회관계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월수입 200만 ~ 400만 원 집단에서는 스포츠 관람, 각종 취미·오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월수입 4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와 음악회·연극·무용·전시회·박물관 관람, 문학행사 참석 등의 문화예술관람 참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활발하다. 이처럼 고소득층에서는 문화자본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이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당신의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예전보다 행복할까요? 대다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뒤집어봅시다. 당신의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모든 사람의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면, 당신은 예전보다 행복할까요? 대다수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당신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요. 경제 총생산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도 대체로 증가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증가할 때 준거기준인 다른 사람들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에, 소득 증가분이 행복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다른 사람의 소득 증가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이 평균보다 더 증가해서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보다 그 액수가 적거나 증가 폭이 좁아 행복 수준이 더 낮아진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에서 본다면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I] 제시문 [가] ~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25점]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 뒷면에 계속 >

[문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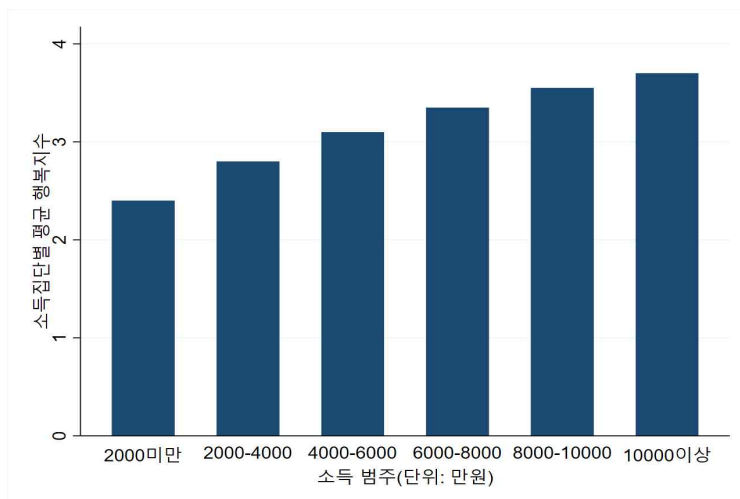
국가 A는 매년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행복도를 조사해오고 있다. <자료 1>은 국가 A에서 2011년에 조사한 소득집단별 평균 행복지수를 나타낸다.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개인들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자료 2>는 국가 A의 1991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평균 소득과 평균 행복지수를 나타낸다. 해당 기간에 국가 A에서 소득 이외에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의 변화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1)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사실들을 설명하고, 이 사실들을 제시문 [자]를 이용해서 해석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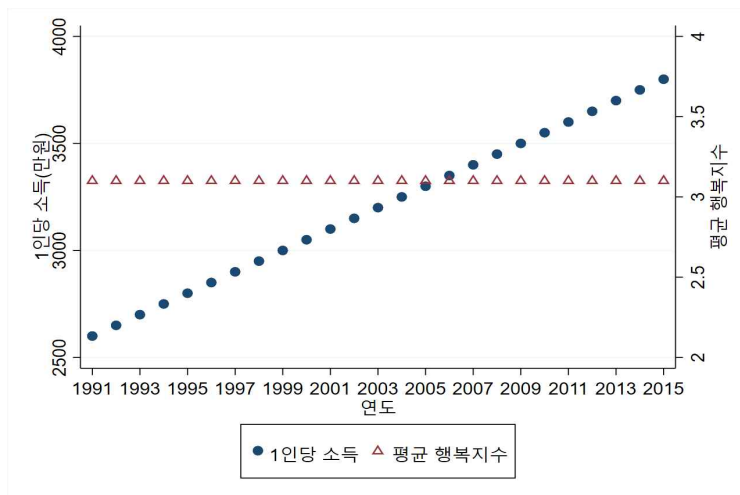
(2) 개인의 행복은 여가시간(측정 단위: 시간)과 소득(측정 단위: 만 원)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그는 이 시간을 근로나 여가 둘 중 하나를 위해 사용한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인 사람과 2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여 두 사람이 경험하는 24시간 동안의 행복도를 가장 높게 하는 여가시간을 구하고, 이때의 소득과 행복 수준을 구하시오. 제시문 [아]를 활용하여 두 사람의 행복 수준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자료 1>



<자료 2>



< 끝 > - 총 2장 4쪽입니다. -